



계성산우회보

제 45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10월 5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10월 정기산행

충북 제천 북바위산(772m)에서

북바위산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가리워져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송과 기암괴석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산이 있으니 이름하야 북바위산(772.1m).. 북쪽의 용마산과 남쪽의 박쥐봉 사이에 길게 드리워져 망대봉까지 이어지는 산이다.

정상에서 남쪽으로는 문경 새재의 주흘산 조령산의 마패봉과 신선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만수봉, 북쪽으로는 용마산이, 그 너머로는 월악산 영봉이 버티고 있어 그 주위 경관은 과히 짐작하리라.

‘북바위산’은 산자락에 타악기인 북과 닮은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사진참조) 북바위산의 산행 초입은 와룡대 맞은편에 있는 물레방아 휴게소이다. 산행 20여분에는 통나무계단으로 이어져 북바위에 이른다. 전망대를 지나오르고 내려가기를 거듭하는 암릉지대 가파른 곳, 위험한 지점은 로프로 이어져 주위경관과 어우러져 지루함과 힘 드는줄 모르고 오른다.

곳곳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며, 600고지 하늘에는 노송의 소나무 숲 길과 땅위로 양탄자 길 천천히 또 천천히 편편한 길을 따라 걸으면 자연과 더불어 계속 머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30여분을 오르면 신선대(652m)에 이른다. 이곳 바위돌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라! 이 어찌 금수강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줄이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감동을 뒤로하고 정상을 향하여 서너번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면 두 시간 삼 십여분만에 북바위산 정상!! 이곳 주위에서 동문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점심시간을 즐기고... 정상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길에 접어들어 오솔길 따라 30여분 내려오면 “시시리재” 이른다. 이곳의 이정표 안내



▲ 북바위산 전경(작은사진은 북바위산 정상).

판을 무시하고 왼쪽 임도를 따라 한시간 반 정도 내려오면 물레방아 휴게소이다. 하산 길은 등산로와 정반대로 너무나 편한 길이라 들꽃과 잡풀이 무성하고 좌측편으로 계곡물이 흘러 더우면 알탕도 가능한 곳이다. 여하튼 하산 길은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멋진 길이다.

등하산 길에 계성총동창회 붉은색 리본을 잘 보기 바란다.

금월 산행은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합동으로 어우러져 산행하는 행사이기에 많은 동문들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 각기의 회장·총무님들 많은 참석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물레방아휴게소-전망대-북바위(해발 480m)-너럭바위-신선대(652m)-나무계단-북바위산 정상(772m)-시시리재(520m)-시시리계곡-물레방아휴게소

총소요시간 (4:30~5:00)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합동산행시 기별준비물>

10월 산행은 대구·재경합동산행이며, 금번은 대구총동창산우회 주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기념품 및 하산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기별 집행부에서는 돗자리 및 대형 공 P.E.T병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10월 14일(日) 07:0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행사특별회비 : 2만원(가족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산행기

도시락에 곁들인 소주한잔, 그 환상의 조화는 신선이 된듯한 느낌...

어제는 지루하게 비가 내렸다. 엿그제.. 금요일 동기들과 범물동 뒷편 웅지봉에 올랐을 적 하늘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어릴적 소풍을 비롯해 꼭 어딜 가려고 날을 받아 놓으면 비가 내린다. 참!!...

아마도 이번 총동창산우회 산행에 불참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리라 우려하면서 일요일 새벽에 눈을 뗐는데..아뿔싸!! 출발시간보다 한 십여 분 늦게 모교에 도착하였다.

부질없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뵈는 선, 후배님들과 겸연쩍은 인사를 대충하는 참나... 버스는 바로 출발한다.

기차가 갈 수 있는 가장 남쪽 끝자락에 있다는 전남 해남... 땅끝 마을이라 불리는 곳으로 우리 산우회원들을 태운 버스는 약 4시간의 이동을 시작하는데 집행부에서 재미난 DVD로 이동시간의 무료함을 달래준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다행히도 비는 그치고...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산행의 출발지인 미항사 주차장에 내려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다음 좌측 동백숲길과 우측 문바위로 오르는 두 갈래의 산행코스를 택하여 달마산을 향하는데 나와 같이 간 우리동기들은 미항사 경내를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몇장 찍고

서 문바위 길로 향한다.

미항사에서 올라다 본 달마봉은 마치 병풍처럼 펼쳐진 암릉속에 솟아나 있는바 오늘 산행이 제법 많은 바윗길을 지나야 함을 알려주는데, 산행 초입 역시 매우 가파르다.

조금씩 조금씩 가쁜 숨을 내쉬면서 산길을 오르다 잠시 뒤를 돌아다 보니 어느새 바다가 조망이 된다.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다도해의 정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하는 궁금증이 더 해짐에 따라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여 정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흙길을 지나자 마자 연이어 계속되는 암릉... 엄청난 바위군속의 위용에 김시우회장님과 신대수 산우회 총무의 이구동성이 터져 나온다. "설악의 작은공룡"이라고...!!! 집채보다 더 큰 문바위 아래에 난 사다리꼴 모양의 작은 틈새를 겨우 비집고 통과하고 한참을 더 올라가서 풀밭 같은 휴식을 취해 본다. 버열정계익은 얼굴도 식히고 흐르는 땀도 닦고 산에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담배도 한가지 물어보면서 저 멀리 조망되는 바다를 바라다보는데 그 감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십여분의 휴식을 뒤로 한 채 이제 달마산의 정상인 불췌봉으로 향한다.



▲ 달마산 정상에서(가운데 필자).

해수면에서 바로 시작되는 산이라 그런지 비교적 낮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르다 보니 제법 숨도 차고 힘에 겨운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곧 정상이다.

불췌봉 정상의 돌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암릉엔 철 구조물의

안전시설이 있어서 오르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정상석 두개가 각도를 달리하여 자리잡고 있다.

참, 희한한데 하나는 불췌봉이고 다른 하나는 달마봉이다. 그 연유를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의문은 거기서 끝이었다. 왜냐면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산 아래 정경은 삼면에 접한 다도해의 풍광이 너무나도 장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완도가 바로 지척에 보인다. 쾌청한 날씨였다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너머 보길도까지 조망이 되었으리라!!

정상에서의 기념촬영을 마친 후, 함께 간 동기들과의 점심식사 시간... 버너불을 지펴서 라면을 끓이고, 미리 준비해 간 도시락에 곁들인 소주한잔의 그 환상(?)의 조화는 순간 신선이 되어 버린듯한 느낌...산꾼이라면 아시리라 생각해 본다.

달마봉에서 미항사로 내려가는 하산길은 우리 일행이 올라온 길 보다는 비교적 순탄하다. 아침까지 내린 비로 인하여 약간의

미끄러움은 있었지만 한 사십여 분만에 하산하여 개울물에 대중목을 씻고 약 세시간여의 산행을 마무리 한다.

조금은 싱거운 산행시간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했으나 산행의 내용만큼은 여느 산행 못지 않았으리라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하산후의 땅끝마을 관광과 동기들과의 흥겨운 하산주의 시간을 가진 채, 버스는 다시 대구로 향했고 달마산의 정기를 흠뻑 받은 몸은 늦은 시각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 산행이라 생각해 본다.

동기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산행의 시간도 가지고 또한 가끔씩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산에 오르며, 산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선, 후배님들과 함께 전국의 명산을 찾아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는 아마도 총동창산우회 산행이 나에게 주는 절대적 혜택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산행후기를 마친다.

글 · 장대욱(70회)



▲ 미항사 대웅전 앞에서 70회 산우회원들.

Total System Engineering 전문회사



(주) 지-포 스
G·FORCE Ltd. Co.,

대표이사 김진걸 (6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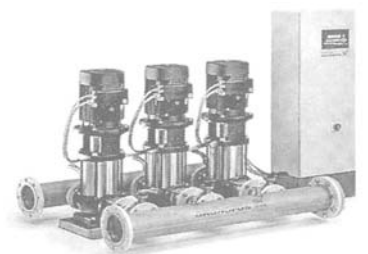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업용재관 19동 18호 / TEL : (053)604-2361~2 / FAX : (053)604-2363
H.P : 016-510-1193 / E-mail : gforce-1@hanmail.net

■ 세계 제일의 품질과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한국 그린포스 펌프 (주)대구대리점

■ VALMAC 영남총판

■ BCT 대구지역 총판 대리점

부스터펌프시스템(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 컨트롤 밸브, 자동밸브, 공장자동화 시스템
- 신개념의 일체형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BCT)
 - 건물 냉, 난방시스템(에너지 절감형)
- Automatic Filto System (Amiad, Filto Mat)

특별산행기

운무(雲霧)속의 설악 공룡능선

〈산우회보 44호 연속〉

▲ 강생강사
(낙뢰를 동반한 우중의 공룡능선)

모두들 결의를 다짐하며 공룡능선길을 나섰다. 선두는 내가 맡아 전체 산행 속도와 휴식을 조정하고 선두와 후미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신속하게 산행하며 후미는 류 선배님께서 독려키로 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산다는 주목군락을 지나 많은 산꾼이 오가는 가파른 소청을 힘겹게 올라 산행시간 관계로 지척의 대청봉을 아쉽게 눈앞에 두고도 오르지 못하고 우리는 가파른 산행을 힘겹게 한없이 내려가 깨끗한 계곡물을 옆에 낀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해 식수를 채우고 비상식을 먹으며 일정을 준비했다. 무너미 고개 삼거리서 무릎이 불편한 산우회 두분은 짧은 천불동 코스로 보내드리고 “노약자와 초보 등산객들은 위험한 공룡길을 자제하라”는 경고문을 주의깊게 읽고 마등정까지 4.9Km 이정표를 보고 운무가 끼어 30m 앞도 보기 힘들지만 늘 지날수 없는 공룡길을 접어들었다.

질은 운무로 주변의 경관은 보이지않고 수많은 암봉을 우회하여 신선봉을 지나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린다. 운무사이로 험준한 용아장성이 어렴풋이 보이다가 공룡능선의 자태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려를 저버리고 갑자기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벌써 1/3지점이나 지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모두들 배낭커버와 저체온증을 우려해 우의를 착용하고 다가 올 악천후에 긴장을 하며 비박할 준비를 한다. 100m에서 200m고도를 몇번 오르내리며 첫 고비인 공룡 최고봉 1,275봉에(마등현까지 2.1m)도착하고 다행히 잠시 비가 그쳐 봉정암에서 받아온 김밥 한주먹과

매 산행마다 항시 미소 가득하시고 정다운신 정도영(55회) 선배 형수님께서 주신 김치와 조개젓갈로 목마름을 축이고 원기를 재충전하였다.

잠시 맑아 저멀리 용아장성과 백암계곡, 가야동계곡에서 솟아오르는 운무가 암봉에 걸려 신비로움을 더한다. 비온후라 바위틈 속에서 빗 방울을 맞고서 활짝핀 아름다운 이름 모를 야생화가 싱그럽게 생기를 복돋아 준다.

잠시 멈칫했던 천둥이 다시 시작하고 폭우가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어 날씨를 탓 하는데 강일영(49회) 선배님께서 준비해오신 우의도 착용치 않으시고 마음껏 장대비를 맞으시며 설악 우중산행의 소원을 풀으셨다며 이제는 달밤 별빛 산행과 취중 산행만 하시면 된다고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신다.

기별 백두대간을 종주하신 노익장 선배님답게 산행 최고의 경지인 임산의 경지를 넘어 서신 것 같다. 무심히 계속 내

리는 비. 바로 옆 수백m 낭떠러지에서 솟아오르는 안개, 골 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함을 넘어 차가운 바람이 무더운 여름 산행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으나 화재능선이 보이질 않아 아쉽기 짝이없다. 가파르고 위험한 주석달의 긴 비탈길과 안전 자일이 쳐진 절벽길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나한봉에 도착했다.

계속 천둥과 비가 거칠줄 모르고 긴 산행과 날밤을 지낸 관계로 체력이 떨어져 갔으나 저체온증을 우려해 쉬지않고 계속 산행하며 준비해온 비상식 육포와 초코렛을 간간히 먹어가며 천천히 조심스레 한발 한발을 옮겨갔다. 오세암가는 이정표가 붙은 삼거리를 지나서 마침내 마등령 정상(1,370M)에 도착하니 휴대폰이 서울 북한산과 수락산 정상부에 낙뢰가 암봉과 철계단에 떨어져 등산객들이 감전되어 5~6명이 사망했다는 문자메세지가 아내로부터 와 있었다. 다행히 천둥과 폭우는 그치고 오른쪽으로 걸려진 운무사이로 아름다운 화재능선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천불동계곡은 짙은 운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기다랗고 가파르고 험준한 공룡능선이 아쉽게도 끝나는 순간이다. 부처님이 기도하는 모습의 세종봉을 지나 기나긴 하산길.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오른쪽으로는 저멀리 화재능선의 절경을 보면서 수백년 세월의 무게로 들어누운 크나큰 소나무들을 넘나들며 크나큰 바위군락과 금강굴을 지나니 산행의 끝을 달리는 계곡의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절경중의 하나인 비선대계곡을 지나 우리 모두 무사히 산행 종착지 소공원에

도착하였다.

▲ 다음 산행을 꿈꾼다.

나는 수도자의 마음으로 산을 오르며 마음을 닦고 수행한다. 아름다운 산하를 보게해주신 신께 감사드리며 함께 산을 갈 수 있는 아내와 선후배님. 산벗들과 함께하는 산행에 행복을 느낀다. 산행으로 얻은 인내와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숭고한 자연의 법칙에서 삶의 겸손을 배워살아가며 다음 산행을 준비한다.

나의 산은 가도 가도 끝이없고 현실에서나 꿈속에서나 저만치 앞서간다.

산꾼들을 위해 특별산행을 준비하신 류청웅 선배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는 따뜻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명예로운 계성산우회원이라는 자부심과, 일체감을 심어준 선후배님과 함께 한 산행 기억, 평생 간직하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결속되고 발전하는 산우회를 위하여 많은 산행 참여와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항시 애정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우 산우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보냅니다. 계성산우회 화이팅! <끝>

글 · 이승엽(61회 · 등반2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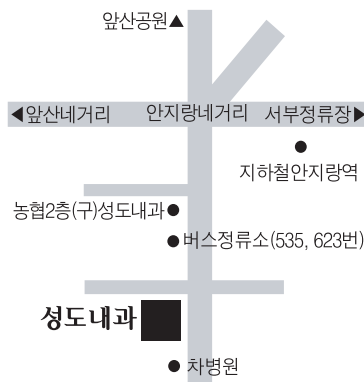
진 | 료 | 과 | 목

- 내과(신장)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상담
부종, 혈뇨단백뇨, 요로감염
- 순환기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각종 판막질환
호흡곤란
- 소화기 - 위암,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간경화, 간염
기능성 장 질환
- 호흡기 - 폐암, 폐결핵, 천식, 기관지염
- 내분비 -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골다공증,
폐경기 증상
- 기 타 - 류마티스 관절염

성도내과의원

원 장 정 성 복 (67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1652-32
진료상담예약 | 053-652-5533
www.seongdoim.co.kr



산우회 탐방

재경 계성 산우회

‘재경 계성 산우회’는 회원의 심신 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하여 동창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매월 세번째 일요일을 우선 불구, 정기 산행일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초기엔 재경 동창회 주관으로 年 한 두차례 산행이 있었으나 산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96년 6월 23일 태능 맥골 배밭 김봉운(40회) 당시 재경 동문회 회장님 농장에서 ‘재경 계성 산우회’ 발족식을 하면서 김만청(45회) 동문님을 초대 산우회 회장으로 추대 하였고 회장 재임 중 1999년 12월 19일 회장직을 사임, 최기웅(45회) 회장님이 보궐 선임되었다. 연혁을 보면, 초대 김만청(45회) 회장님에 이어 최기웅(45회) 회장, 이재도(46회) 회장, 이성덕(47회) 회장, 박철환(52회) 現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행시 구호는 ‘계우’를 사용하여, 선두와 후미 사이에서 위치 확인시 여기 저기서 외치며, 목적지에서 휴식과 식사 후 ‘계성 계성 대한민국 야!’를 함께 외치고 행사와 더불어 산우회 다짐으로, 우리 산우회 회원은 계성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로 생각하면서 ‘서로 믿고 도우며 사랑합시다’ ‘힘을 모아 단결

합시다’ ‘모교 발전에 기여합시다’를 복창하고 누군가의 지휘하에 모교 교가를 힘차게 부르고 하산을 한다.

▷1997년 10월 25일 설악산 12선녀탕 계곡, 대승령(1,210m) 등반-1박 2일, 89명 참석 ▷1997년 11월 15일 영남알프스 사자봉(1,189m) 무박 등반, 68명 참석 ▷1998년 03월 15일 북한산 등반, 시산제, 86명 참석 ▷1998년 04월 19일 기차 1칸 전세, 강촌 등반, 68명 참석 ▷1998년 06월 21일 창립 2주년 기념 유명산 등반-1박2일, 86명 참석 ▷1999년 04월 비슬산(1,083m) 72 명 참가, [대구 산우회의 발족 동기가 되었고] ▷1999년 10월 속리산(1,057m) 78 명 참가, [재경 산우회, 대구 산우회 합동 산행 원년으로] ▷2000년 8월 철의 삼각지, 고석정, 땅굴, 백마고지 산행겸 관광 등 해마다 시산제와 합동 산행, 근교 산행과 관광겸 원거리 산행을 하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재경 계성 산우회’를 중심으로 각 기수별로 산우회가 결성되고, 지역별 모임이나 취미가 같은 동호회도 계속 만들어져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회장님을 비롯 45회부터 58회까지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 감사를 맡고 계시며 산행지 현지 답사며 산행을



▲ 지난해 개교100주년 기념산행(청계산).

총괄하는 등반대장을 중심으로 산행 당일 진행을 담당하는 진행부, 예산 편성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관리부, 홍보나 사진을 담당하는 홍보부 등에는 후배들과 함께 60회, 61회, 62회, 50대 기수를 중심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기수별 산행에서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며 ‘재경산우회’에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만끽하고 있다.

한번 계성은 영원한 계성이라! 한 세대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70회 전후의 후배 동문님들의 참여가 절실하기도 한다. 반갑게도 8월 산행에선 홍천에서 대대장으로 군 복무를 하는 73회 동문이 비상식을 개별 포장해서 찾아와 70회 등

문과의 만남에 모두들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꼈고, 9월 산행에선 계마회 73회 동문 세명이 참여를 해서 또 한번 동문간의 정을 느꼈다.

계성이 있는 한 ‘재경 계성 산우회’는 존재할 것이고, 훗 날을 위해선 젊은 후배 동문들의 많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재경계성산우회 회장 박철환 (52회)

9월 정기산행 땅끝 마을 해남 달마산에서 열려

제92차 정기산행이 9월 2일 전남 해남에 소재한 달마산에서 실시되었다.

장마 아닌 장맛비 때문에 정상 산행에 대한 회원들의 걱정이 컸지만 산을 좋아하는 여러 열성 회원님들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받은 탓인지 아주 맑은 날씨 속에 즐거운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어 버스를 장시간 타기도 했지만, DVD 영화관람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총3편의 영화관람을 했는데 여러 회원들로부터 꽤 좋은 평을 받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영화관람 코너를 운영할까 한다.

산행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였는데, 달마산 암릉을 오르는 재미도 솔솔했지만 정상부에서 바라본 땅끝 마을과 남해 바다는 한마디로 절경이었다.

산행을 마친후 땅끝 마을 전망대로 이동하여 삼삼오오 전망대를 오르기도 하고 일부는 하산주의 즐거움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없이 9월 정기산행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10월 제93차 정기산행은 재경산우회와 합동산행으로서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참석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48회 : 류청웅, 변학준, 손성구
▷49회 : 강일영 부부, 최준

▷51회 : 남기진, 권영호 부부, 김명숙 ▷52회 : 김시우, 정하룡, 김재태, 김신웅, 박영기, 서정환 ▷55회 : 정인재 부부 ▷60회 : 백기홍 부부, 박영태 부부, 장용현, 서해동, 주이광 ▷61회 : 이승엽, 임유상 ▷63회 : 이탁 ▷67회 : 이창엽, 박종후, 김성연, 송준석, 박득현 ▷70회 : 박준석, 박상훈, 조현영 부부, 장대욱 부부, 신대수 ▷71회 : 노규영, 차봉준, 석준수 ▷76회 : 장보일 부부 (총 45명 참석)

당일 잔조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일영(49회) : 현금10만원
▷남기진(51회) : 백설기 70인분
잔조하신분께 감사드립니다.
글 : 신대수(70회·총무)

집행부 소식

❖ 9월 30일 차기산행지인 충북 제천 북바위산의 답사를 류청웅 등반대장, 신대수 총무의 8명이 다녀왔다.

❖ 10월 1일 편집회의겸 차기산행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기별 동정

◆ 재경계성산우회

9월 16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에서 30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1회

9월 30일 가는 둔덕산에서 20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3회

9월 8일~9일 1박2일로 일본 큐슈아소산에서 43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5회

9월 9일 경남 사천 와룡산에서 24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3회

9월 23일 경산 선의산에서 8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4회

9월 30일 옥수골에서 대덕산 정상을 거쳐 자동차 경기장 뒷편으로 10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5회

9월 8일 토요산행으로 기백산·금원산을 12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7회

9월 9일 40차 정기산행을 구미 금오산에서 11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70회

10월 20일~21일 1박 2일간 금원산, 기백산 중주산행 및 단합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 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